

1

최근 5년간(2019~2023) 8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8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286건 발생(월평균 247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건)
2019	198	139	182	214	244	246	262	311	358	327	262	228	2,971
2020	209	173	192	173	265	263	305	311	399	351	286	229	3,156
2021	202	161	201	199	185	238	261	233	287	327	236	190	2,720
2022	159	137	199	201	229	230	267	284	313	326	297	221	2,863
2023	193	183	224	234	258	265	286	291	357	334	230	237	3,092
월평균	192	159	200	204	236	248	276	286	343	333	262	221	2,960

○ (사고유형별) 주요사고는 충돌 26건(9.0%), 화재·폭발 14건(4.9%), 안전 사고 14건(4.8%), 전복 10건(3.5%), 침몰 3건(1.2%) 순으로 발생

* 단순사고는 기관손상 85건(29.7%), 부유물 감김 28건(9.7%), 침수 19건(6.6%), 좌초 17건(6.0%) 등 순

○ (선박종류별) 어선 209척(65.4%), 레저기구 67척(21.1%), 화물선 11척(3.6%), 기타선 10척(3.2%), 예인선 10척(3.0%), 유조선 8척(2.4%), 여객선 4척(1.4%) 순

□ 8월은 하계휴가 성수기이며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특히 전복·침몰사고에 유의

○ (사고현황) 전월 대비 전복 및 침몰사고가 34.0%(50건→67건) 증가

- 특히, 올해 상반기 전복·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자)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10명→37명)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예방대책) 복원성을 저해하는 과적 금지, 상갑판 배수구 개방, 수밀문·개구부의 패쇄장치 작동여부 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 유지

태풍 발생현황 통계(출처: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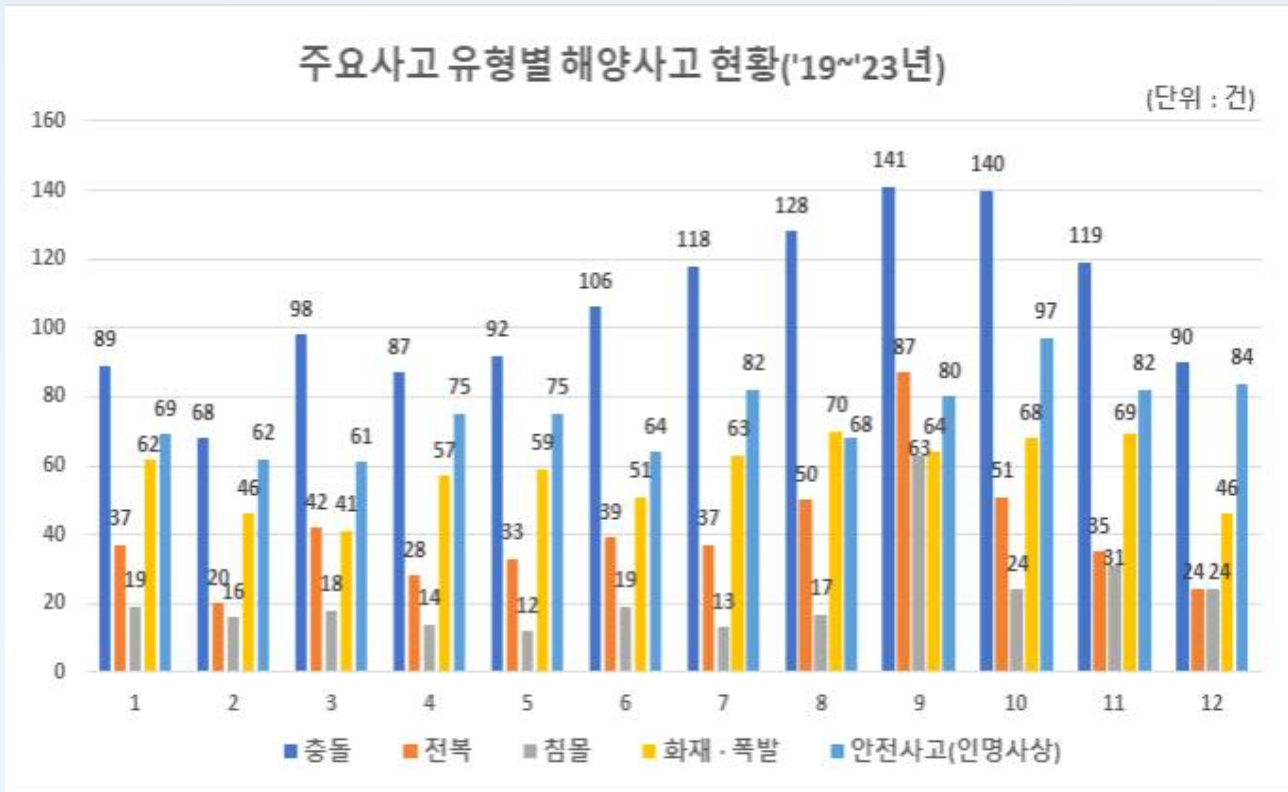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3	0.3	0.6	1.0	1.7 (0.3)	3.7 (1.0)	5.6 (1.2)	5.1 (0.8)	3.5 (0.1)	2.1	1.0	25.1 (3.4)
금년	0(0)	0(0)	0(0)	0(0)	2(0)	0(0)	2(0)	-	-	-	-	-	4(0)

※ ()안의 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를 나타냄.(태풍발생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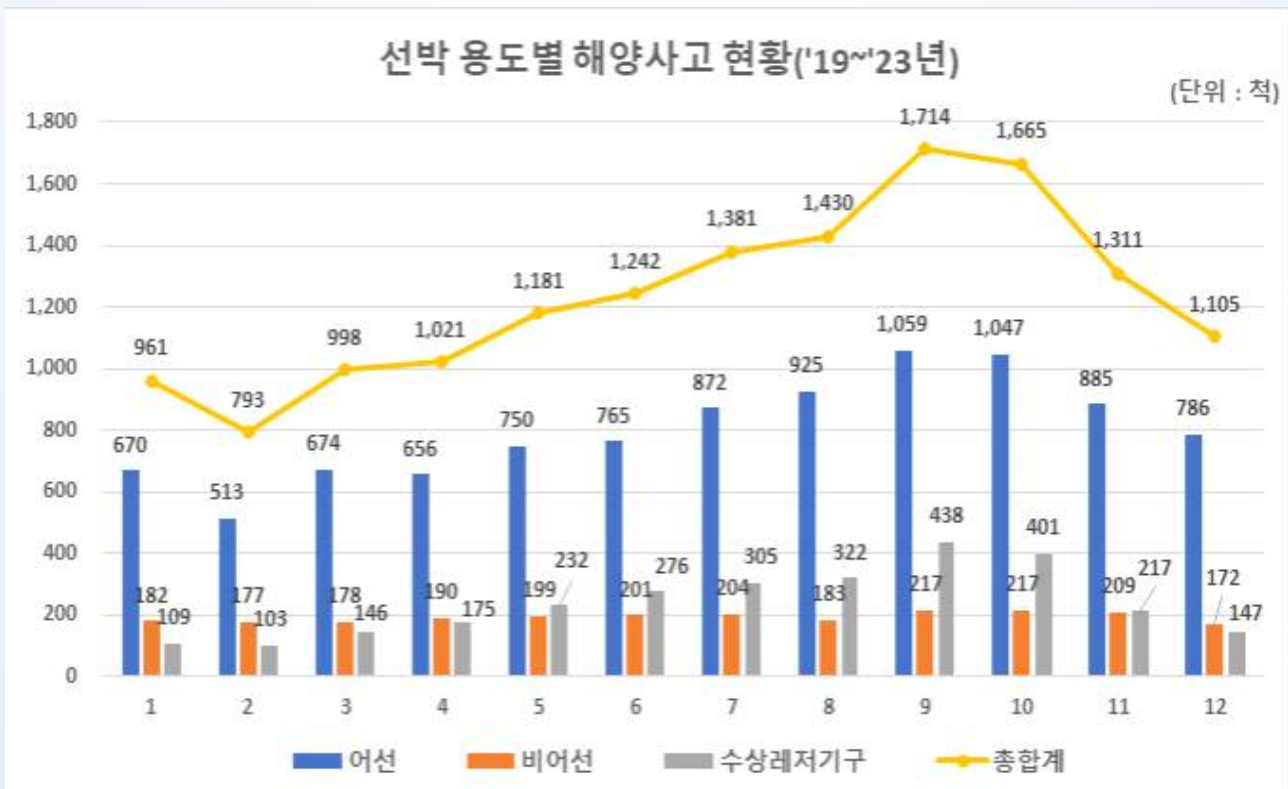
월별 전복·침몰사고 발생현황('19~'23년)



1.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1. 2024년 8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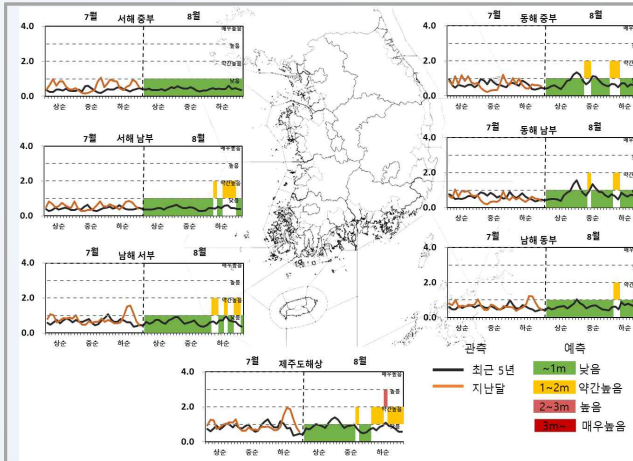
○ 8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5년('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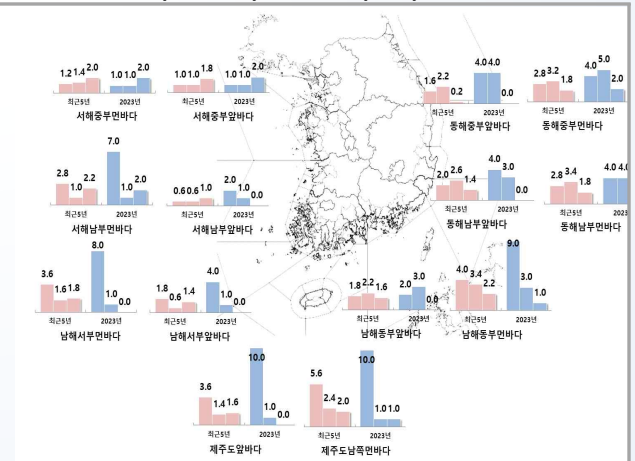
○ '24년 8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최근 5년간('19~'23년) 및 지난해('23년) 8월 풍랑특보일 수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1. 어선 A호 전복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9.77톤, 길이 15.18미터
	일시 장소	2019. 8. 27. 08:52경 경상북도 경주시 송대말등대로부터 096도 방향, 약 57마일 해상
	피해	A호: 선원 1명 부상, 선체 전복
	날씨	흐린 날씨, 서풍 초속 8~10미터, 파고 약 3미터, 풍랑주의보 발효 예정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전복사건은 선장이 기상이 악화된 해상에서 과적한 상태로 조업 중 부적절한 통발 적재와 선박 조선으로 선체 횡경사가 가중되어 기관실의 해수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은 출항 전 어떠한 경우라도 과적한 상태에서 출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장은 출항 전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개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폐쇄하여야 한다. ○ 선장은 상갑판의 해수가 잘 배수될 수 있도록 상갑판에 설치된 배수구를 막히지 않게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통발 등의 어구를 상갑판에 적재할 경우 좌·우 균형을 맞추어 적재하고 고박을 철저히 하여 선박 동요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장은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 어창에 적재된 해수를 배출하거나 가득 적재하여 유동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일링 요트 B호 전복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어선, 19톤, 길이 13.96미터
	일시 장소	2021. 8. 11. 16: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해상
	피해	B호: 선체 전복
	날씨	흐린 날씨, 시정 약 3마일, 북풍 초속 6~9미터, 파고 약 2.0미터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및 비상 설비 보관장소 숙지 소홀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은 출항 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선박이 안전한 상태로 출항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설비의 작동법과 비치 장소를 명확하게 숙지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승선정원을 준수하고, 수중레저 기구, 수중레저장비, 수중레저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출항 전 선체의 개구부, 현창 등의 폐쇄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